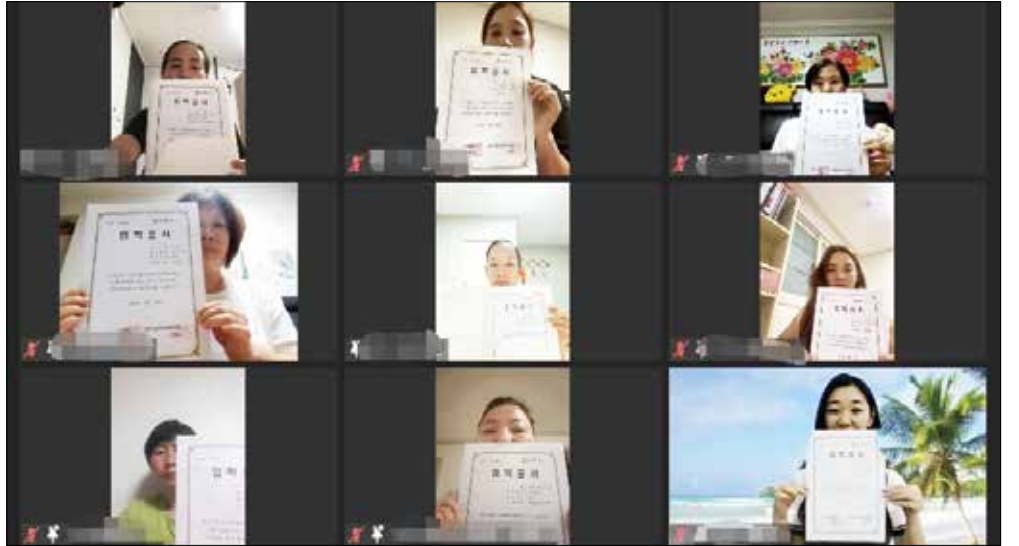


2022년 시흥다문화엄마학교 6기 졸업식 및 7기 입학식



초등자녀 양육 결혼이주여성 대상 교육사업, 학령기 자녀의 학습에 엄마 역할 확대

시흥시가족센터(센터장 강은이)는 지난 2022년 8월 19일에 비대면(온라인) ‘6기 졸업식 및 7기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졸업식 및 입학식에는 9명의 졸업생과 10명의 입학생 및 6명의 시흥다문화엄마학교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다.

식은 5개월 간 시흥다문화엄마학교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9명의 6기 졸업생들은 공식적인 졸업식을 통해 끝맺음의 의미를 되새기고 기수 종결에 대한 유종의 미를 거두는 시간이 되었으며, 올해 8월부터 수업에 참여하게 될 새로운 입학생들은 공식 입학절차를 거

쳐 선발되었음을 인지하고 향후 진행될 교과과정을 간략하게 이해하는 시간으로 구성했다.

행사에 참석한 오재곤 시흥다문화엄마학교 교장은 “그동안 시흥다문화엄마학교 6기 입학생들이 지켜보며 빠짐없이 출석하고 자녀 학습에 대한 끈기를 갖고있다”며 “이번에 6기 졸업식과 7기 입학식을 동시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문화엄마학교 6기 졸업생들이 7기 입학생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줄 것이다”고 말했다.

이윤표 담임은 이에 덧붙여 “자녀의 학습에 관심을 갖고 다문화엄마학교

프로그램에 신청한 것 자체로 대단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라며 입학생들의 학습적 열의를 높게 평가했다.

이어서 6기 졸업식 성적최우수자의 소감나눔 시간에 중국국적의 결혼이민자 장○은 “9살 딸과 대화를 할 때 엄마한테 하는 질문이 줄어들것이 염려되어 자신감이 떨어질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엄마학교에 입학하고부터 학습적으로 도움을 받고 아이와의 대화시간이 늘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고 말했다.

6기 졸업생 장○의 자녀 장○○은 “엄마가 공부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저도 주말아침에는 같이 공부하고 숙제를 제시간에 완성해야 되겠다고 다짐했어요”라며 소감을 전했다.

한편 시흥다문화엄마학교는 초등 자녀를 양육하는 결혼이주여성 진행되는 교육사업으로 초등검정고시과정 7개 과목을 이수 한 후 학령기 자녀의 학습을 직접적으로 담당하여 엄마 역할의 확대를 돕는다.

현재 시흥다문화엄마학교 7기 입학생 선발이 완료되었으며 8월 27일 첫 원격수업 진행을 앞두고 있다.

강성혁 기자

deallyness@naver.com

Be careful when doing outdoor activities! Tsutsugamushi warning issued

September to October is a period of high risk of infection with Scrub Typhus, and you should be careful when you are outdoors.

Tsutsugamushi is an infectious disease characterized by ulceration accompanied by a black scab in the area where tick larvae attached to the skin and sucked blood. The incubation period is 6 to 21 days, but symptoms usually appear around 10 to 12 days.

Tsutsugamushi improves quickly within one to two days after proper

treatment, but otherwise, the fever lasts for about two weeks, which can lead to complications such as meningitis, hearing loss, and tinnitus.

You should pay attention to removing ticks after outdoor activities because ticks stick to you and you can transfer tsutsugamushi disease.

It is recommended to reduce skin exposure with long clothes and long socks during outdoor activities and to prevent infection by applying

tick repellents. In addition, it is recommended to shake off and wash clothes worn after outdoor activities, and remove mites that may stick to them through showers or baths.

Baek Kyung-ran, head of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said, "Since the occurrence of fur mites increases in autumn, minimize exposure to dangerous environments to prevent tsutsugamushi," and stressed, "If symptoms such as fever or rash

appear after outdoor activities, visit a medical institution for treatment."

강경수 기자

sdjebo@naver.com

☞ 관련기사 한국어 19면, 일본어 7면, 중국어 40면, 베트남어 46면, 타갈로그어 6면, 태국어 45면

